퇴직연금 지식의 기본 값

김 현기 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⑦⑧

> 근로기간은 짧아지는데 노후 대책은 한 것이 없고
> 3층 연금자산관리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 퇴직연금제도는 도입되었는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 퇴직연금 적립금은 직접 운용해야 한다는데 방법을 잘 모르고
> 퇴직연금 교육은 e-메일, 서면, 온라인 등 형식적이고
> 초저금리 상황에서 투자는 해야겠는데, 손실이 겁나고
> 학교에서 금융, 투자, 돈, 자본주의에 대해 제대로 교육 받지 못했고
> 믿고 상담할 수 있는 금융회사와 컨설턴트는 찾기가 어렵고…….

금융의 기본 값(Default Value)은 심리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금융의 실천 방법으로정의 할 수 있습니다.

Q:퇴직연금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여 노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퇴직연금지식의 기본값을 알려주십시오.

A:사실 돈을 제외하고 은퇴설계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에 대해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그럼 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돈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퇴직연금의 내용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를 퇴직연금지식의 기본값이라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지식은 실천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퇴직연금지식의 기본 값은 첫째, 회사가 도입한 퇴직연금제도가 ①DB(확정급여형제도), ②DC(확정기여형제도), ③DB와 DC, ④DB와 DC와 혼합형(DB와 DC의 혼합), ⑤기업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 등 모두 다섯 가지 중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 본인의 제도는 ①DB제도, ②DC제도, 그리고 ③혼합형 제도, ④기업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 중 무엇인 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회사가 DB와 DC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 지 선택 할 수 있는지요.

넷째,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혼합형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근로자는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세액공제 연금저축 적립과 기타 추가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법정 사유를 충족한 경우,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가능한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여덟째,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가,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그 방법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상 퇴직연금지식의 기본값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식이 실천 방법을 알게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고 노후를 더욱 두텁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神의 직장' 아닌 '甲의 직장'

기자 수첩
채 신 화
〈파이낸스&마켓부〉

그들을 만난 건 지난해 9월 금융권 취업박람회에서였다. 대표적인 '화이트칼라'를 꿈꾸던 그들은 타이트한 정장을 입고 불편한 구두를 신은 채 길게 줄서 있었다. 면접 차례가 오기까지는 4시간이 넘게 걸렸다. 결국 구두를 벗고 맨발로 섰다.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고 한들 '신의 직장'은 신의 직장. 그들은 치열하게 임했다.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나고 보니 을(乙), 병(丙), 정(丁)…. 그날 줄(권력) 없는 이들만 줄을 섰다는 게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2015~2017년 은행권 전수 조사를 한 결과 국민·하나·부산·대구·광주 등 5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채용 청탁자는 권력자의 지인이거나 친인척이거나 VIP였다. 한마디로 '갑(甲)'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청탁이 오고 갔다. 청탁한 이들은 대부분 합격했다. 합격시키기 위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구직자를 탈락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관련 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을 소환, 구속하기 시작했다. 최근엔 BNK금융지주 박재경 사장과 BNK저축은행 강동주 대표가 부산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되면서 향후 연루된 금융권 수장들이 줄소환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수사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순서가 엉켰다. 감독 기관에서 먼저 옷을 벗는 일이 생겼다. 지난 12일 채용 비리 감독을 진두지휘했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그는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대학 동기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인사 담당 임원에게 동기 아들의 이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추천일뿐 청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으나, 최고경영자의 언급 자체가 채용 압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은행권에선 '누가 누굴 감시하느냐'는 식의 비웃음이 나왔고, 최 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사임했다. 그러나 파장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감독 기관의 수장마저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리니 금융권의 위상과 신뢰도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은 더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애초에 정정당당한 승부가 아니었고, 앞으로의 승부도 심판이 못미덥기 때문. 특혜 채용으로 입사한 이들은 불이익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날 온종일 면접을 기다리던 그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

/csh9101@metroseoul.co.kr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파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김대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부단장 김창겸 △한국학지식정보센터 문화콘텐츠 편찬실장 김진광

◆**KG엔지니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승진〉 △지반공학부 김경수 △감리부 문만석 〈상무 승진〉 △감리부 임종훈 〈이사 승진〉 △건축부 김현석 △도시계획1부 유영필 △도시계획2부 남호준 △도시계획3부 김종남 △단지설계부 정태희 △상하수도1부 이송래 △수자원부 노경희 △감리부 김지호 정화수 박현용 이성삼 안효진 김영일박인철

◆**글로벌이코노믹** △산업부 재계팀장 겸 뉴미디어부 전략팀장 김병용

부음

▲차봉수씨 별세, 차명주(KBO 육성위원)씨 부친상 = 1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15분. ☎ 02-2258-5940

▲ 최수묵씨 별세, 조길형(충주시장)씨 장모상 =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청구성심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30분 ☎ 02-352-444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3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제3914호 / 0008호

롯데물산, 월드타워서 국제 수직마라톤 개최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국제 수직마라톤 대회 '스카이런(SKY RUN)'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5월13일 열리는 스카이런은 롯데월드타워 1층 아레나 광장에서 123층 전망대까지 555미터, 2917계단을 뛰어오르는 국제 수직마라톤 대회다. 2018년에 열리는 총 10개 공식 대회 중 첫 번째로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다. 2017년 열린 대회에서는 호주의 마크 본 선수가 15분 44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스카이런 참가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롯데월드타워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롯데물산

국민연금公, 장애인들과 평창 패럴림픽 응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2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전국 각지의 장애인 120여 명과 함께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을 위해 장애인마다 봉사자가 1명씩 동행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경기 관람 후 장애인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한화생명 드림플러스에 컬럼비아대 MBA과정 수강생 방문 한화생명은 13일 컬럼비아대 MBA과정 학생 및 교수진이 스타트업 육성센터인 드림플러스 강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컬럼비아대 MBA 측에서 한국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로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강남을 선정하면서 이루어졌다. 드림플러스 강남에는 라이프스타일, 헬스케어,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대기업, 벤처캐피털들이 입주했다. 컬럼비아대 MBA 과정 수강생들이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사업 추진 전략 등 입주대표들과 대담을 나눈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KEB하나은행, 하나 해피클래스 인니 봉사활동 KEB하나은행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하나 해피 클래스(Hana Happy Class)인도네시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 해피 클래스'는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 대축제인 '모두하나데이'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봉사활동이다. '휴매니티'에 기반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열악한 학습환경에 놓인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실 및 도서관 설치, 시설 보수, 학용품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한국먼디파마-대한약사회 안전한 약물사용 위한 MOU 한국먼디파마는 대한약사회와 1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약국에서의 감염 예방 상담 활성화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약물 사용에 기여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 목적에 있다. 한국먼디파마 이명세 회장(오른쪽)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먼디파마

정식품, 베지밀 온도계 통해 모금된 두유 소외계층에 전달 정식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 캠페인인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를 통해 모금한 2300여개의 두유를 보육원 및 노인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는 정식품이 지난 2012년 시작한 사랑나눔 캠페인부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열린 이번 캠페인에는 총 2252명이 참여했다. /정식품